"한민족 역사와 삶의 뿌리 백두대간"



◇소백산 알 도솔봉에서 만난 일몰.

백두대간 속으로 〈42〉 연재를 마치며

1200km 대간 2년 4개월 대장정

무분별 개발로 '몸살' 앓아 아쉬움

향로봉에 올라, 금강산의 정수리인 비로봉을 바라본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짙은 안개뿐이다. 워낙 일기 변화가 심한 곳이어서 미리부터 실망 연습을 해 왔던 터였으므로 오히려 담담하다.

비로봉. 금강산의 기기묘묘한 바위 봉우리들을 달리 이를 말이 없어 1만 2천이라 했을 것이고, 그 숫자 아닌 숫자의 궁극을 비로봉이라 했으니 예사로운 이름은 아니다. 비로(毗盧)곧 법신(法身)을 일컬음이니, 오늘의 안개는 필시 형상으로는 부처를 볼 수 없음을 일깨우는 법문이 아닌가 싶다.

저기 어딘가 비로봉을 앞에 둔 촛대봉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촛대봉을 앞에 둔 향로봉은 이름 그대로 구름을 향불 연기 삼고 있다. 어차피 분단의 장벽 너머이고, 봄(見)이 함(行)만 못한 바에야, 훗날을 기약함에 있어 이 정도의 아쉬움은 있어 약일 것 같다. 그러고 보니 이것도 인연인 것 같다. 백두대간 종주 첫날, 지리산 천왕봉도 그러했다. 그때도 지리산의 짙은 안개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었다. 역설적이게도 그 때문에 더 많은 걸 느낄 수 있었다.

안개 너머 북쪽 끝 백두산에서부터 지리산으로 흘러내리며 이 땅의 근간을 이루는 백두대간의 실체를 더듬어 본다.

백두산에서 출발하여 지리산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땅의 으뜸되는 산줄기 백두대간. 그 길이는 대략 1600km(지도상 거리). 금강산, 설악산, 오대산, 소백산, 속리산, 덕유산과 같은 명산들의 거처가 바로 백두대간이다. 또한 백두대간은 1개의 정간과 13개의 정맥을 가지치고 있으니, 실로 이 땅의 모든 산과 강은 백두대간에서 비롯된다.

우리 땅의 형세를 분절의 개념이 아니라 연속적인 흐름으로 인식한 것은, 신라말 후삼국의 격변기의 대선사이자 한국 풍수의 비조로 불리우는 도선 스님에서부터다. 고려사에는 다음과 같이 도선 스님의 저술을 인용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백두산에서 시작되어 지리산에서 끝나는데, 그 지세(地勢)의 본 뿌리는 수(水)요 줄기는 목(木)이라…"

위 인용문의 핵심은 '수모목간(水母木幹)이다. 백두산(천지, 水)에 뿌리를 두고 지리산으로 뻗어나가는 한 그루 커다란 나무의 형국이 우리 땅의 실체라는 것이다.

산은 솟아올라 강을 이루고, 산줄기는 그 강의 윤택히 구실을 하며 우리네 삶의 터전을 마련해 준다. 산줄기를 기준으로 기후와 문화가 갈리는 것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쉬운 예로 영남, 영동, 영서 따위의 지역 구분이 모두 백두대간의 등성마루를 기준 삼은 것이다.

또한 백두대간은 우리 나라 생태계의 중심축이자 보고이다. 녹색연합이 1999년에 발표한 남녘 백두대간 자연생태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특산식물(고유종) 407종 가운데 109종, 환경부와 산림청 임업연구원에서 지정 고시한 보호식물 가운데 각각 10종, 56종이 자생하고 있는 등 백두대간 능선 일대에는 총 120과 1326종의 식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비해 동물의 생태는 아주 빈약하다. 이를 전문가들은 산체는 큰데 체력은 허약한 사람에 빗대기도 한다. 실제로 간혹 흔적이 발견되는 반달가슴곰은 멸종 위기에 놓였고 여우나 늑대 같은 동물은 거의 멸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도 산양, 산양노루, 하늘다람쥐와 같은 희귀 보호 동물들은 백두대간 일대를 중심으로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듯 백두대간은 우리네 삶과 생태계의 근간이다. 그런데 지금 백두대간은 무분별한 개발의 상처로 심하게 앓고 있다. 역시 녹색연합의 보고서에 의하면 1998년 현재 93개의 도로가 백두대간을 가로지르며 생태계의 단절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추풍령 지나 금산이나 백봉령 너머 자봉산 같은 곳은 송두리째 파헤쳐져 인간의 골모를 탐욕을 증언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도상거리 640km, 실거리 1200km에 6개의 도와 12개 시, 18개 군에 걸쳐있는 남녘 백두대간의 품에 온전히 안겨보았다는 기쁨에 취해보는 일도 조금은 송구스럽다.

2년이 넘는 시간을 백두대간 속에서 보냈다. 백두대간을 제대로 알기 위한 준비 정도는 된 것 같다.

(군 작전지역인 향로봉까지의 발길을 열어준 육군 00사단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린다.)

글=윤제학 기자
사진=손재식(사진작가)

독자들께 드리는 글

1999년 5월 31일, 지리산 천왕봉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2001년 9월 10일, 남녘 백두대간의 마지막 고개인 진부령을 지나 금강산의 남쪽 봉우리인 향로봉에서 발길을 거두었습니다.

그리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진달래가 세번 피고 졌고, 겨울을 두번이나 만났습니다. 꽃그늘에 누워 봄꿈에 잠기는 나른한 행복감을 맛보기도 했고, 반나절이면 될 거리를 2~3일 동안이나 헤매며 눈길을 헤치기도 했습니다.

연재를 이어오면서, 어떻게 하면 백두대간의 진면모를 보여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꽤나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만족감은커녕 매번 낭패감을 맛보았습니다. 알량한 붓끝으로 담아내기엔 백두대간은 너무 크고 깊었고, 무시로 만나게 되는 우리 산천의 아름다움은 결코 서푼어치 글에 걸려들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때론 개인적인 느낌을 거칠게 드러내기도 했고, 참나의 감정을 보편의 차원으로 말하는 '내 눈에 콩깍지' 식 억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재를 마무리하게 된 점, 독자 여러분의 너그러움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또 고백하건대, 산행 동안의 지배적인 감정은 '춥고, 덥고, 배고프고, 다리 아프고…' 하는 따위의 원초적인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굽이쳐 흐르는 산줄기를 한눈에 담는 순간이나, 발 아래 저 편을 가늠하기 힘든 아득함으로 벌려 놓는 운해를 만났을 때, 혹은 밤길을 걷다가 무심결에 산마루에 누워 쏟아질 듯한 별무리를 만났을 때의 충만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감정이었고 저는 그 감정에 충실하려 애썼습니다. 만약 이러한 제 감정의 표현이 독자 여러분께 과장으로 비쳤다면, 이는 아마 저의 기억 소자가 행복감 쪽으로 기민하게 반응하는 탓일 겁니다. 이점 또한 너그럽게 봐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산천 아름다움

붓끝에 담기엔 벅차

전해야 한다는 의무감

더 많은것 보고 느끼게

이제 백두대간을 구실로 독자 여러분을 뵙는 일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저로서는 못내 아쉽고 섭섭한 일입니다. 어떤 때는 독자 여러분들께 무언가를 전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등에 진 배낭보다 더 무겁게 저를 짓누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저로 하여금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끼게 만들었고, 가끔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도 말문을 열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항상 독자 여러분과 함께 산행을 한 셈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끝으로 개인적인 얘기 한 마디만 더 보태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산행하며, 산 보는 눈이 아둔한 저의 길눈이 되어 주신 구인모 선생님, 좋은 사진으로 어설픈 제 글의 기댈 언덕을 마련해 주신 사진가 손재식 선생님, 좋은 산벗 이원영 씨, 그리고 물심양면 지원을 해 주신 법흥사 도완 스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마운 인연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POSCO
FIFA 월드컵 공식파트너

당신이 몰라주셔도

바라만 봐도 좋습니다.
당신을 생각하면 입가에 웃음부터 번지고
시골 소녀처럼 사과빛으로 볼이 달아오릅니다.
당신의 미소에 아찔해지고
당신의 행복에 남몰래 기뻐했던 33년.
당신이 몰라주셔도 좋습니다.
그저 물처럼, 공기처럼…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합니다.

놀이터의 미끄럼틀이 철이라는 것을 몰라주셔도,
자전거의 바퀴에 철이 있다는 것을 몰라주셔도,
그리고 그 철을 만드는 포스코를 몰라주셔도 좋습니다.
철이 있어 사람들이 조금 더 행복해지고
철이 있어 세상이 조금 더 편해지는 것만으로
철도, 포스코도 행복하니까요.

세상을 향한 철의 마음이 그저 짝사랑일지라도
포스코는 언제나 첫 마음 그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소리없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POSCO
www.posco.co.kr